

5월 황금연휴 남도 축제장 관광객 북적

순천만정원 1일 입장객 신기록...5일간 31만명 방문

담양 대나무축제 28만명 등 전남 관광지 인파 몰려

5월 황금연휴 기간동안 순천만정원을 비롯해 담양 대나무축제 등 도내 주요 축제행사장이 행락객들로 북적였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5일 순천만정원(순천만 포함)을 찾은 관광객은 11만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막이 열린 지난 2013년 9월 10만3342명보다 많은 숫자로, 1일 입장객 신기록을 세웠다.

5일 연휴인 1일부터 5일까지 총 관람객(순천만 포함)은 31만8172명으로 1일 평균 관람객은 6만3600여 명이 다녀가 예상 관람객 30만명을 훌쩍 넘었다.

순천지역은 순천만정원뿐만 아니라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지도 관광객들로 들쭉였다. 연휴기간 동안 에코촌, 자연휴양림 예약이 100%였으며, 일반 숙박업소와 식당도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특히 농촌체험마을까지도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난해 순천만정원을 개장해 이벤트나 행사가 아닌 꽃과 나무, 정원으로 조성된 업그레이드된 순천만정원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순천만 정원이 정원박람회보다

업그레이드돼 일시적인 축제장소가 아닌 상시적인 전국의 유명 힐링 관광지로서 자리 잡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금연휴 기간인 1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17회 담양 대나무축제도 30만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담양군은 지난 1~5일 죽녹원, 관방재림 등 일대에서 열린 축제장에 모두 28만 6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축제의 주요 무대인 죽녹원에 3만1662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죽녹원 개장 이후 하루 방문객으로는 역대 최다로, 이전 기록은 지난해 5월 5일 2만8792명이었다.

군은 ‘가정의 달’ 황금연휴 기간에 축제가 열린데다 기존 체험행사에 거리 공연인 버스킹, 저글링, 마임 퍼포먼스 등을 곁들이며 관광객들에게 즐겁거리를 제공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축제 기간 주말과 어린이날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대표 프로그램인 ‘죽물시장 가는 길’도 완성도 있게 재해해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은 내년 축제뿐만 아니라 오는 9월 열리는 세계 대나무박람회에서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장성 흥길동 축제와 완도 장보고 축제, 함평 나비축제, 여수 진남제 행사장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순천=김은중·박선천기자 ejkim@/담양=정재근기자 jjo@

전남 농업박물관 23일 모내기 체험행사

21일까지 학생 참가자 모집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농업테마공원 벼한살이 체험장 일원에서 초·중·고생 및 동반가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모내기 시연 및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참가 희망자는 21일까지 전남도 농업박물관(www.jam.go.kr, 061-462-279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통모내기 체험은 농업박물관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옛 방식에 따라 만들어 놓은 못자리에서 자란 모를 행사참가자들이 직접 손으로 찌고, 못줄을 띄워가면서 전통 방식대로 모를 심는 체험행사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모내기 유래와 방법 등 행사 전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남도들노래 시연이 펼쳐진다.

이후 참가자들이 못자리에서 자란 모를 손으로 직접 찌 지푸라기를 이용

해 ‘모춤’을 만들고 이를 지게에 저 써레질이 끝난 논으로 옮기게 한 다음 못줄을 띄워가며 모를 한 줄 한 줄 심게 된다.

또 이날 행사에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제51호)로 지정된 남도들노래 예능보유자(이영자·박동매) 등 보존회원 30여 명을 초청해 참가자들과 함께 ‘모 찌는 소리’와 ‘모심는 소리’ 등을 불러 흥을 돋운다.

체험 참가비는 개인당 5000원이며, 참가자들은 불장화·긴 양말, 여벌옷, 모자, 수건 등을 준비해야 한다.

김우성 관장은 “현대화된 농업으로 기계식 모내기가 이뤄지고 전통 방식의 손모내기를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돼 잊혀져가는 전통 모내기를 재현, 직접 체험토록 해 선조들의 지혜와 옛 농경생활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꽃마차 말 행사·부족한 화장실·불친절 식당 고창 청보리밭축제 관광객 불만 폭주

홈페이지에 운영 미숙 등 지적

우리나라 경관농업의 대표축제인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운영상의 미숙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다.

관광객들은 청보리밭 축제 홈페이지(www.gochangbori.com) 자유계시판을 통해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과 안내·편의시설 부족, 서비스 미흡, 동물학대 등을 지적했다.

축제 개막일인 지난 18일 이곳을 찾았다는 김모(34·경기도)씨는 “가족들과 함께 오는데 4시간이 걸렸지만 가슴이 확 트인 청보리밭과 유채꽃이 어우러진 풍경 이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실망스러웠다”고 글을 올렸다.

또 관광객들은 화장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고, 주차장이 비포장으로 많은 먼지를 일으키는 바람에 입을 막고 걸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축제장 한편에서 운영되는 꽃마차와 관련, 관광객들은 “마차를 끄는 말의 털말이 윤기가 없고 몸 상태가 피곤에 지쳐 있는데 이는 동물학대”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관광객은 “예쁘게 치장한 마차에 어울리지 않게 동물학대에 가깝게 말을 혹사시켜 눈살이 찌푸러졌다”면서 “사람이 모이면 말들의 휴식과 상관없이 체질적하



고창 청보리밭축제에서 운영 중인 꽃마차.

며 운행한다. 말이 지쳐도 무리하게 달리게 하는데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밖에 주변 식당도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는데 그나마 오래 기다려도 성의없는 반찬과 불친절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반응도 많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이 불편적으로 만족해 한다”면서 “꽃마차는 축제기간 동안 운영하기로 계약돼 있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동물학대로 비칠 수 있는 요소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초록의 꿈! 추억의 보릿길!’을 주제로 4월 1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3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에서 열린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남원 유기농 곤달비 채취 체험

관광객들이 최근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친환경 유기농 곤달비 농장에서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 공취와 비슷하게 생긴 곤달비는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을 갖고 있는 산나물이다. /남원=정규섭기자 jgs@

정읍서 ‘유물로 보는 동학이야기’ 전시회

10월까지 동학혁명기념관

사발통문 등 기증·기탁 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오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기증·기탁 유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군 이야기’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기증·기탁된 유물 가운데 ‘사발통문’(通文), ‘이춘선 홍패’(李春善 紅牌), ‘순교약력’(殉教略歷) 등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유물 30여점이 선보인다.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인 유물인 사발통문은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해

인 1893년 11월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의 동학 간부들이 모여 농민군의 최종 목표를 적은 문서로, 주모자를 알 수 없도록 사발처럼 둥근 형태로 서명한 것이다.

이춘선 홍패는 무관의 신분으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군의 은신을 도운 입암선장 별장 이춘선이 1888년 무과에 급제해 받은 합격증서이다. 순교약력은 남원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순교한 인물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유물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기증·기탁자들의 뜻에 따라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광한루원서 매주 국악공연 즐기세요

금요일 ‘광한루의 밤 풍경’

토요일 ‘광한루연가 열녀춘향’

남원시는 8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에 광한루원에서 국악 공연을 한다.

금요일 공연은 다양한 민속 음악과 퓨전 국악을 선보이는 ‘광한루의 밤 풍경’으로 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토요일 공연은 창곡과 뮤지컬의 장점을 섞어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국악 뮤지컬 ‘광한루연가 열녀춘향’으로 9월부터 10월 24일까지 이어진다.

이 뮤지컬은 지난해에는 ‘가인춘향’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려 1만2천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등 남원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람료는 금요일은 무료, 토요일은 5000원이다. /남원=정규섭기자 jgs@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모텔 화순군 도곡면 대지 1671㎡(505) 건물 1010㎡(305) 4억 5천
- 레스토랑, 카페, 신수오거리에서 20분, 광주호에서 5분거리 영 업 빌딩 대지1054㎡(319), 건물473㎡(143), 은행 2억3천 교환가능 5억7천
- 유동 로타리 인근 4차선 도로 상업지 대지 335㎡(101) 건물 601㎡(185) 공시지가 3억9천 은행 2억2천 매도 4억
- 금남로 4가 병원·사육 등 적합 5층건물 대지648㎡(196), 건물3410㎡(1032), 감정 23억 7800만원 매도 21억7천
- 영암군 월출산 관광지(설치구) 대지 1026㎡(310) 건물 2085㎡(630) 민박·식당·매점 등의 시설 은행 8억5천 매도가격은 협의하임, 전화요망
- 금남로4가 대로변 대지 317㎡(97) 건물 1235㎡(363) 은행 4억 3천 임대 9천에 월 460에 임대 중 공실 있음 14억
- 대인동 사육 등 적합건물 대지 780㎡(236) 건물 1993㎡(603) 감정가 24억 7천 매도 20억 6천건물임
- 대인동 7층건물 대지 332㎡(100) 건물 1340㎡(423) 은행 4억 주택거주하며 임대생활에 적합 9억 5천
- 신안동 모텔 대지 364㎡(110) 건물 885㎡(268) 객실 28실 은행 7억 교환도 가능 매도 9억 5천

투자·매도·교환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물 736㎡(228) 상가와 안질,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선 수익 8억7천
- 전도군 고교면 백파리산 16860㎡(5100) 2천 5백만원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역 1117㎡(338) 전세 92천월 210 건물신축에 적합 12억
- 물류창고·공장 적합 광산구 삼가동 33000㎡(10000) 26억
- 동명동 조선대 부근 시설 좋은 고가빌 대지236㎡(71) 건물732㎡(2221) 60실 공실임 은행 3억 4천 월 1200만원 수입 안정적인 노후생활적합 8억 3천
- 양산동 1층 주거지 1317㎡(398) 다세대·빌라 적합 은행 2억 7천 매도 6억 2천
- 전원주택지 나주시 노안면 4344㎡(1314) 2억 8천
- 신안군 임태면 섬 56233㎡(17010) 교환가능 3억 7천
- 장흥군 유차면 산 75769㎡(22920) 매도 4240만원

문의 222-4994, 010-2632-565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층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방 안호, 매3억8천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층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 75㎡, 점포 26㎡, 매2억4천

농지/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7,930㎡ 신축주택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변, 매12억
-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전 배 과수원 6,089㎡ 생산관리 지역 투자유망 매 7억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담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
- ▶ 나주시 광동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변 매3억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전 2,820㎡ 2차선도로변 광주시 대충동경계 매1억7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원
-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3,871㎡ 주택, 창고적합, 도로양호 매9천5백만
- ▶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담7,610㎡ 2차선 국도변 도로변, 투자유망매1억5천만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384,140㎡ (대지,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원
- ▶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 과수원24,884㎡ 매4억8천만
- ▶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 91,446㎡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전(일부대지) 배 과수원4,914㎡ 4차선 국도변, 자연녹지, 판매장 적합 투자 유망 매2억5천만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51
이준상 ☎ 010 9510 1151

법원경매

광산구 소촌동 2중주거지역 15m도로점 대지400㎡ 건물1~2층 295㎡ 카센터 세차장이용중 2층인접 감정가 3억7천9백 최저가 3억3백만원

북구 충효동 추가정일대 전945㎡~3,260㎡ m²당 6만원대, 원호시음식점 이주예정지 최저가 5천5백~1억9천만원, 투자가치 최고

담양군 금성면 근리시설대지 30,308㎡ 2층건물 2,916㎡ 현재 민속박물관(오양병원, 수련원,전원주택개발가능) 감정가 28억 최저가 10억

보성군 율포해수욕장인근 상가 토지556㎡ 건물1~2층 500㎡ 펜션 및 음식점, 상가추천, 도로점 감정가 4억1천2백 최저가 1억4천8백만원

부동산재테크 전문
다와옥션 김용희부장
010-7147-4989

(주)전국부동산 경매연구소

초저금리(예금/대출) 시대에 제테크의 지름길은 "부동산 경매" 입니다.

추천물건

아파트

진월동 광명(A) (동향) 11층, 60㎡, 입찰일 5/27일 감정가 1억 2천 3백, 최저가 8천 6백
일곡동 청송(A) (남향) 4층, 48.5㎡, 입찰일 5/27일 감정가 9천 7백, 최저가 6천 7백
치평동 갤러리303(A) (남서향) 8층, 173.1㎡, 입찰일 5/27일 감정가 5억 1천, 최저가 3억 5천 7백
동명동 남양·현대(A) (동향) 6층, 60㎡, 입찰일 6/3일 감정가 1억 4천 5백, 최저가 8백 3십
소태동 엔케이아일랜드 1차(A) 7층, 59.3㎡, 입찰일 6/3일 감정가 1억 4천 6백, 최저가 1억 3백

근린상가/다가구
동구 대인동 대지 780.2㎡, >입찰일 5월 19일 건물 1992.6㎡ 감정가 24억 7천, 최저가 13억 8천
북구 오치동 대지 222.3㎡ >입찰일 5월 19일 건물 193.0㎡ 감정가 2억 6백, 최저가 1억 4천

방문 및 상담
062-449-2552
010-3441-1308 (주/야)
062-449-2552@daum.net
수익금 일부는 생영사량운동본부에 후원합니다.

30%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30% 축하화환3단

결혼, 고회,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